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2,

요한복음 10:1-42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1-42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일반적으로 선한 목자 담화로 알려진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따라가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의 일부 핵심 영역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절기 주기라고 불렀던 것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이 그와 관련된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에 대한 초기 이야기에서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의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1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불과하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우화적인 담론을 하는 예수의 교대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여기 이 강의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비유였는지, 비유였는지, 우화였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잠시 동안 약간의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하여 자신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도둑, 목자, 양, 나그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그의 청중은 그것에 대한 약간의 편집 논평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실한 목자와 샅꾼을 대조하면서 신실한 목자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는 물론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도둑과 강도와 품꾼에 대한 모든 경멸적인 용어가 그분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진정한 관심을 종교적인 관심과 대조시킨다는 전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도자들. 그는 그것들을 우화의 부정적인 특징으로 스타일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분의 결론은 그가 자신을 신실한 목자로서 종교 지도자들과 고용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보아온 것처럼 다시 한 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 청중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1019년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의 말을 듣나요?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과 그다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것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21절에서는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따라서 여기 10장에는 9장으로 돌아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1장이 시작될 때 10장이 1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나 다음 주 또는 그 이후에 우리는 9장에서 10장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9장 41절에서 그들의 눈이 먼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10장 1절에서 동일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은 9장에서 이어지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해하지 못했다면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청중 중 일부가 말한 내용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맹인의 눈? 그들은 물론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부스 축제 기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에 관해 우리가 7장에서 연대순으로 읽은 모든 내용을 사실상 결론짓는 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연대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0장과 22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봉헌절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봉헌절은 성전봉헌절인 하누카(Hanukkah)이다. 내 생각에 우리는 그것을 기원전 160년대 중간기 동안의 성전 재헌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강제로 유대인들을 기본적으로 이교 사상으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는 따라갔지만 종종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하스몬 왕조가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셀레우코스 왕조에 맞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박해의 일부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마카베오서에 따르면 그는 결국 제단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요세푸스도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찾은 후 성전을 다시 봉헌했고, 더 풍부하고 순수한 기름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름 한 병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여 온 시간을 관리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 빛의 절기, 하누카는 모두 그 기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누카(Hanukkah)는 우리가 현대에도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늦은 12월쯤에 찾아오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휴일이므로 요한복음 10장의 첫 번째 부분과 10.22로 전환되는 시점 사이에 대략적으로 말하면 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 22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겨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세 번의 열띤 교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소 짧지만 청중의 분노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솔로몬의 열주를 거닐고 계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의 둘레, 현관, 열주, 기둥이 있는 덮힌 통로였던 지역을 따라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억하실 수 있듯이 이곳은 그곳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이던 장소이기도 하며 흔히 솔로몬의 현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솔로몬의 행랑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를 솔로몬의 현관 교회라고 부르며 토론과 토론에 열려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환영하는 교회로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실 때에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나이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분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다르지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6장에서 청중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25절에서도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생각에 비슷한 일이 8장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셨던 다섯 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에 대한 증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근 몇 달 전 초막절에 가르치셨던 내용을 하누카에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 담론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그 주제를 선택하시고 27절에서 계속해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라.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논쟁의 절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을 집어 그에게 돌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싶나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 주었다. 당신은 내가 메시아인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지 말해줬어요.

이제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걸까요? 33절에서 그들은 선한 일을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게 한낱 사람이 있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므로 돌로 치려는 것이라 대답하였느니라. 따라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든 아니든, 예수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일종의 비방이며, 따라서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의 마지막 논쟁은 바로 여기 34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시편 82편을 인용하여 성경에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시편 82편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입니다. 비디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요점은 그가 성경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그것에 대해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5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전복시키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세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t 모세가 나를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모세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10장 34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나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성경에

의해 뒷받침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34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주의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가 시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당연히 토라, 네비임, 케투빔으로 나누어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타나크, 토라, 네비임, 케투빔 전체, 구약 전체가 법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래서 아마도 그가 여기에서 시편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더 작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시편 82편에 분명히 인간이나 천사를 신으로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왜 나에게 화를 내는가? 당신은 그 성경에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까지의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3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이 8장과 같이 이전 장들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구축하는 것일 뿐이며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든 영리하게든 그들이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9장까지의 연결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문맥적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왜 여기에 새로운 장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장 구분이 잘 배치되어 출발, 즉 새로운 주제를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이 후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일종의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0장에는 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신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10장 1절을 9장 42절처럼 읽어야 할 것입니다. 9장의 구절은 42개가 아니라 41개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 담론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지닌 따뜻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 양과 그것을 껴안고 있는 어린 아이 등등.

그것은 모두 좋은 일이며, 우리는 그분의 양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회적 관심에 확실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가 시편 23편과 다른 많은 본문과 같은 성경 본문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존의 서사적 흐름에서 이것은 따뜻하고 모호한 텍스트가 아니라 뜨겁고 들쭉날쭉한 텍스트, 아니면 차갑고 들쭉날쭉한 텍스트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안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옆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담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그의 양떼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보살핌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땅히 되어야 할 목자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목회 강론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목회 본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적 비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문맥에서 볼 때 그 안에서 큰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위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슬픈 반역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찾을 수 있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여러 면에서 매우 슬픈 본문임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이 텍스트는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점은 그것이 어떻게 9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나서 자신에 대해 더 완전한 지식을 얻게 하신 9장의 맹인에 대해 생각한다면, 9장의 이 사람은 9 그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아 회당에서 쫓겨났으니 우리는 그가 10장에서 말하는 거짓 목자들과 마귀들에게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 양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과 강도의 고용된 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소경은 도적이 올 때에 삯꾼에게 버림받은 한 양의 예라고 말하였거니와 이제 예수께서 그를 잡아 자기 양 떼 안으로

데려가시리니 능히 할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을 예수와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의 문맥적 연관성에 대해 생각한 후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다음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이 전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학적 장치인가? 이 자료는 어떤 장르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신약성서 연구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관복음 전통과 요한복음 전통의 한 가지 차이점은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비유가 가득하다는 점이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우화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유인가 아닌가? 공관 비유에 비추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글쎄요, 그것의 첫 번째 덩어리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 1부터 5까지이고, 비유나 비유적 표현,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집자는 기본적으로 6절에서 이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7절과 그 이후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비유가 나올 때 이런 내용을 발견하면 종종 예수님께서 천국도 수녀와 같을 것이다, 천국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소개됩니다. 종종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것이 그러하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비유의 요소들과 그들이 말하는 요소들 사이의 확장된 비유인 비교를 그리고 있습니다.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지닌 땅의 이야기라는 옛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생각엔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고, 찾아야 할 도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에는 그런 종류의 언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천국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것이 여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목자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샅꾼과 같고 도적과 같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비유가 있다고 들은 것과 같은 외부적 함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여 확장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이 비유적인 표현을 묘사하기 위해 여기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단어는 파로이미아(paromia)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파로이미아(paromia)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비유인 공관복음의 비유에 사용된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담화에 때때로 사용되는 구약성서 용어는 마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마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신약성경에서는 비유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파로이미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몇 번 사용되었고 그 후 16장 25절과 29절에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베드로후서는 같은 말을 하고 2장 22절에서도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돼지가 진흙으로 돌아가고 개들이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다소 역겨운 일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불쾌한 암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로이미아는 일종의 비유적인 말, 무언가를 표현하는 기억에 남는 방법, 간결한 것, 일종의 비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비교, 속담, 무언가를 설명하는 눈길을 끄는 방법, 물론

비유라는 단어와는 다른 용어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오히려 하찮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자신의 상황,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확장된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이 모든 용어가 실제 생활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어떻게 비유되는지입니다. 바로 거기 그리고 바로 그때. 따라서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청중과 사람들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나머지 민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3장과 같은 예언서에서 다양한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와 그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며 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흘으며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리라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자들을 내가 쫓아 보내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오리니 거기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실종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인 에스겔 34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현 이스라엘 지도층이 백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들의 부패가 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방법으로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떼를 이용하는 목자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마태복음 9장 36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굵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아마도 그 배경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본문은 아마도 원칙적으로 적어도 예레미야와 에스겔 및 기타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 즉 양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진정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가없는 눈먼 양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목회자가 있기보다는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를 볼모로 이용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10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배경은 매우 일반적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하지도, 정통하지도 않은 현재의 리더십과 자신을 미묘하게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교 유형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설명하신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는 그가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해 추측하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유에서 일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는 단지 하나의 주요 요점을 만들 뿐이고, 가르치거나 설교할 가치가 있는 비교 요점은 단 하나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비유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현실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유도 이야기이고 우화도 이야기이며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위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한 가지 요점만 강조하려는 비유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준비되지 않은 신부 들러리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교훈은 그가 말했듯이, 당신은 언제든지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그 특정한 맥락에서 예수께서 신부 들러리들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이것을 상징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상징하고, 기름은 이것을 상징하며, 가서 가서 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단지 하나의 주요 아이디어만 있을 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이야기들은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묘사되고, 씨가 뿌려지고, 뿌려진 씨에 대한 네 가지 다른 반응으로 상세한 해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만 비유 전체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해당 하위 아이디어도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단지 하나의 주요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수준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목자가 언급되어 있으며, 11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 목자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양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유의 흥미로운 점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 우리는 특히 밤에 약탈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을 가두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지상 이야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에는 그에 상응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오히려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마도 교회는 그의 보호적인 지도 아래 있는 양 우리로 그가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양 우리를 열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방식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열두 제자, 즉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실 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양을 잡으러 나가는 거짓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 낯선 사람, 품꾼, 늑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간과 동물계의 늑대, 양을 실제로 돌보지 않는 개인이 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 정당한 주인에게서 양을 훔치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은 아마도 도둑과 강도의 미묘한 버전일 것입니다. 와서 양들을 정당한 주인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사람입니다. 품꾼은 단지 일만 할 뿐이고 양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일 것이며, 늑대처럼 어떤 위험이 닥치자마자 도망쳐 버리고 실제로 양 옆에서 있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방법.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한 실제 설명이 있습니까? 글썄, 내 생각엔 그가 자기보다 먼저 온 모든 사람을 도둑과 강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모든이라는 단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필요한 목회 지도자의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낯선 사람, 고용인, 늑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실제 서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존재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메시아, 즉 예수를 참으로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고용인은 양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자신의 지위를 위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늑대를 사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종류의 작품입니다. 아마도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탄에 대한 암시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그의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양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같은 사람들(요한복음 4장)과 본질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인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고 싶고 그들이 같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면에서 다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적 신학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려지고 있는 이 확장된 비유는 매우 명확하고 매우 흥미롭고 매우 교화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요점을 만들기 위해 양을 사용하는 Agnes Day라는 매우 독특한 웹사이트가 있으며 이 웹사이트에는 특히 요한복음을 다룬 흥미로운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기서 만든 연상의 패러디 해석학이 이 만화를 통해 고찰되고 있는 것이다. 만화지만 여기서는 인물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양이 다른 양들에게 예수님이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문이냐고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더 교육받은 양, 분명히 신학교 교수는 여기에 몇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교수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유형입니다. 답변.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다른 양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당신이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또 다른 신학적 요점과 관련하여 아그네스 데이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 비유가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달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 중 일부를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들은 누구입니까? 방금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암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암시입니다. 물론 그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아마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패턴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브라함의 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현실을 유대인들에게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에 다가가서 축복하는 그분의 선교 기관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11장과 12장에서도 암시를 가졌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에 대한 암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대리자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10장과 12절과 같은 본문에서 샅꾼은 목자가 아니며 양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자 늑대는 양 떼를 공격하여 흩어지게 합니다. 그 사람은 샅꾼이라는 이유로 도망치고 양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대조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는 품꾼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를 고용한 이, 곧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에게 신실하시며, 그가 가실 것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누카 후반부의 설교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29절, 나에게 양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논쟁을 벌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친밀하고 가깝고 독특한 관계가 거기서 문제였고 여기서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흥미로운 신학적 요점은 예수님이 양들의 안전에 관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국 내에서 이에 관해 많은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과 영원한 안전과 같은 교리를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의 영원한 안전 교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이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음성만 알지만 그 음성, 다른 어떤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인내가 없으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대중신학의 논쟁을 벌이는 양측 모두에게 위안과 고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양들은 참으로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들은 양 떼의 목자를 따르며 믿음을 인내함으로 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그들 자신을 맡기고 있느니라. 결론을 내리면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야기할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신성하다고 매우 높이 평가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니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의 연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과 아버지께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라는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처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그에게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2편의 흥미로운 논의로 이어지며 여기서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구약성서에 대한 몇 가지 암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양 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과 같은 본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0장과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이 있으니 그들도 데리고 와야 하리라. 아마도 에스겔 34장과 에스겔 37장.

10:22에는 하누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마카베오서 1서와 마카베오서 2서의 외경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 바빌로니아 탈무드에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Tractate Shabbat 21b의 B를 의미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온라인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장에서 성경, 타나크,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을 가장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 난처하게 사용하는 것은 예수께서 시편 82편을 10장 34절에서 언급하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하여 신성을 모독한다 하여 돌에 맞을 뻔 하였느니라.

그래서 34절에서 그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신이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시편 82편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 시편은 그 안에 앞뒤로 많은 내용이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큰 집회를 주재하시고 신들과 엘로힘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늘 보좌실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천사 존재들에 대한 언급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판결하시고 그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맡기고 계십니다. 시편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신들이 아마도 인간, 아마도 시민 권위자 또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아닌 이상 분명히 그것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신들 사이에서 심판을 내리는 것은 하늘 의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신 지상 지도자들 사이에서 심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신들, 즉 이 해석에 따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저지른 불의가 여기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의한 자를 변호하며 악인의 낫을 보이려느냐? 3절에서는 약한 자와 고아를 신원하며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며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5절은 천사 존재나 인간 지도자, 인간 재판관을 무익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돌아다닙니다.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6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구체적으로 암시하시는 본문입니다. 내가 말했지요, 너희는 신들이요,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부족하여(7절)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통치자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기업을 소의 소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포함된 다소 광범위한 우주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시편 82편은 천사와 같은 존재나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한 권위를 위임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의 부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이 시편을 언급하시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신이라 하였음이 너희 율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035, 여기에 예수님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면. 따라서 이것은 if-then 유형의 삼단논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면.

즉, 시편 82편에 언급된 존재들은 임무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중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대 전제. 사소한 전제, 성경은 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이는 어떨습니까? 이것이 형식논리학에서 고전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의

논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 중 일부에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랍비 문헌은 이런 종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성서의 다른 곳, 특히 바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것으로 논쟁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비유를 그려 요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것을 가볍고 무겁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벼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불렀다면 더 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어찌 나를 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이 돌들은 왜 당신 손에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세우신 자니라. 왜 나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신성한 권위를 휘두르는 성경 본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기능적으로는 신이다.

그들은 신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줄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물론 그가 언급할 가장 최근의 사역은 9장에 나오는 소경을 고치는 사역일 것이다. 그러나 9장의 교훈이 아이러니하게 표현하듯이,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신성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시편 82편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땅에 중재하고 공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할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성격을 유지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8장과 9장의 끝에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10장의 끝에서 주제를 붙잡습니다.

또 다시 그를 잡으려고 했으나 그는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다시 가셨다. 그래서 이 장이 끝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기와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요르단 건너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의 장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7장에 도달한 이후로 보아온 장과 동일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영상을 연달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와 겪었던 어려움과 긴장, 갈등을 꽤 많이 겪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야가 되려 했으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영접을 받지 못하니 이 모든 것을 함께 들었다면 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아마도 시편 82편은 예수께서 대우받으신 방식에 대한 적절한 결론일 것입니다. 원래 시편에서 자행된 불의는 아마도 요한복음 7-10장에 나오는 동일한 유형의 지도자들에 의해 여기에서도 예수님에게 자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약간의 신학적 성찰을 위해 아그네스 데이(Agnes Dei)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양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갖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 교수는 여기서 당황하며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은 큰 통찰력을 가지고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그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이트의 또 다른 만화인데, 여기 왼쪽 양이 오른쪽 교수님과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나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강조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계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메니아주의자들, 즉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나아온 신자들의 안전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에 대해 일종의 찌르는 재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물론 이 모든 것에서 지혜의 더 좋은 부분은 아마도 제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은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 떼에 들어맞은 양으로서 우리가 뛰어내리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이 거둢해서 말하듯이, 낯선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는 양, 그리고 그를 아주 아주 가까이 따르는 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예루살렘의 긴장된 시간,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1-42입니다.